

## 유제두

前 복싱세계챔피언

### “76년 패배는 中情 약물공작”

#### 본지 인터뷰서 고백

고흥 출신 전 주니어미들급 세계 챔피언 유제두(60)씨가 1976년 도쿄에서 열린 일본 와지마 고이치와의 방어전에서 의문의 패배를 당한 것은 당시 무한 권력을 행사했던 중앙정보부의 약물 공작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유제두 챔피언의 의문의 패배와 관련, 당시에도 ‘약물중독설’ 등이 떠돌았으나 그 배후에 대해 당사자인 유씨가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 “DJ와 친분 미운털... 딸기에 약물 넣어”

처음이다. 유제두씨는 지난 24일 본지 기자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중앙정보부 요원인 목포 출신 후배 S씨가 지난 1981년에 찾아와 ‘그날(경기 당일) 드신 딸기 속에 약을 넣었다고 하던데요’라는 말을 했었다”며 “중앙정보부가 김대중 선생과 친분이 있는 나를 견제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과잉 충성하는 차원에서 약물 중

독 공작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씨는 또 “71년부터 김대중 선생한테 매년 명절 때 인사 갔고, 세계챔피언 따고도 동교동에 간 것을 중앙정보부가 알고 있었다”며 “또 만약 2차 방어전에 승리, 또 동교동을 찾아가고 이것을 언론에서 떠들면 박 대통령이 싫어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고 말했다. 유씨는 “당시 한국권투위원회 위원장은 중앙정

보부장 측근이어서 모든 작업이 가능했고 그날 패배 이후에도 세계타이틀전을 의도적으로 주선해 주지 않아 은퇴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유씨는 이어 “이후 정권이 바뀐 뒤 후배 S씨에게 ‘나는 증거가 없어 밝힐 수 없으니 직접 내막을 밝혀달라’고 수차례 부탁했으나 거절당했다”며 “최근에는 S씨와 연락도 끊겼다” 말했다. 유씨의 인터뷰 내용은 본보 30일자 7면에 보도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이웃과 송편 나눠요” 광주 북구 장애인 복지회(이사장 문상필)와 자원봉사자 등 70여명은 28일 북구 장애인직업재활센터에서 ‘추석맞이 송편나누기 행사’를 벌였다. 이날 만든 송편은 북구관내 중증장애인, 독거노인 등 250세대에 전달됐다. /나영주기자 mjna@kwangju.co.kr

# 기아차 광주공장 또 멈췄다

## 노조 “노동강도 높다” 일방적 조업거부... 뉴카렌스 생산 전면 중단

### 경제·시민단체·협력업체, 파업 중단 촉구

뉴스포티지와 함께 기아자동차를 이끌어갈 차세대 SUV(스포츠레저차량) 뉴카렌스 생산라인이 노동조합원들의 조업 거부로 지난 26일 멈춰선 뒤 3일째 가동이 중지되고 있다.

최근 한달여의 장기파업으로 1만5천여대의 차량을 생산하지 못해 2천300억원의 생산차질을 빚은 기아차 광주공장의 뉴카렌스 생산이 전면 중단되면서 협력업체는 물론 지역경제에 막대한 타격이 우려된다.

이같은 소식을 접한 지역 경제·시

민단체·협력업체 대표들은 28일 광주공장 노동조합 앞에서 파업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 광주시민들의 입장을 전달했다.

기아차 광주공장에 따르면 뉴카렌스 생산라인 노조원들은 “노동강도가 너무 강해 추가 인력보강이 필요하다”며 26일 오후 2시 30분부터 조업을 거부, 28일 현재까지 라인 가동이 전면 중단된 상태다. 이로 인해 광주공장은 1천853대의 뉴카렌스 생산 차질을 빚어 287억원의 손실이 발생

한 것으로 집계됐다.

노조는 “라인가동 중 NECK(작업 도중 과부하) 현상이 발생하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인력을 24개 생산별 편제별로 10% 추가하기로 했으나, 회사측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파업에 돌입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회사측은 “라인가동률이 95%에 이른 상태에서 NECK가 발생하면 인력을 보강하기로 했었다”면서 “조합원들의 요구에 따라 NECK 현상에 대한 현장 실사작업을 벌이던 중 조합원들이 지난 11일부터 일부 작업거부에 들어간 뒤 돌연 26일부터 조업을 전면 거부, 라인이 멈췄다”고 밝혔다.

노조원들은 26일 조업거부와 함께 광주공장 분관 앞에서 계란을 투척하며 시위했으며, 28일 300여명의 노조

원들이 집회 도중 분관 진입을 시도하다 사무직 직원들과 몸싸움이 벌어져 관리자 1명이 부상을 입기도 했다. 회사측은 27일 오전 10시 이번 사태를 주도한 카렌스 공장 대위원 14명에 대해 서부경찰서에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한편 28일 광주상공회의소, 광주전남경영자총협회, 기아차 광주공장 협력업체, 시민사회단체 총연합회 등 단체 관계자와 대표 등 30명은 “입단협 합의서의 권자국이 채 마르지도 않은 지금 광주공장이 조업을 거부한 것은 불 때 지역민과 지역발전이 안중에서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노조는 더이상 지역민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조업중단을 강력하게 비난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 “민간아파트도 분양원가 공개”

## 盧대통령 방송토론서...이르면 내년 4월부터

노무현 대통령은 28일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논란과 관련,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라며 찬성 입장을 분명히 하고 정계개편론과 관련해서는 “정치적 이해관계나 승리·패배에만 매몰돼 당을 만들고 깨고 하는 것은 앞으로 안했으면 좋겠다”며 원칙적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노 대통령은 또 복핵문제와 관련, 한미 정상간 합의한 ‘공공의 포괄적 접근 방안’과 관련, “우리가 아직도

이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 어떤 반응이 나오지 않았지만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밤 방영된 MBC의 ‘특집 100분 토론’에 출연, “지금은 제가 분양원가 공개제를 반대할 수가 없다”며 “왜냐하면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믿고 있고, 많은 시민사회에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노 대

통령의 이같은 입장은 지난 2004년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개혁이 아니다”라는 발언을 뒤집는 것이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이날 “노 대통령의 분양원가 공개 대상 확대 발언을 계기로 주택 건설사업의 투명성과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 분양가격 인하 유도를 위해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확대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이르면 내년 4월부터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까지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

## 김홍일 의원직 상실

### ‘나라중금’ 유죄...집유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8일 안상태 전 나라중금 사장으로부터 인사청탁 대가로 1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불구속 기소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남 김홍일(사년) 민주당 의원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5천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 피선거권을 상실함에 따라 이날 의원직을 잃게 됐다. /연합뉴스

## 박지원 ‘150억 수수’ 무죄

### ‘대북송금’은 유죄...3년형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28일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현대 비자금 150억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확정결과는 박 전 장관이 2003년 6월 구속된 이후 3년 5개월만에 내려졌다. 그러나 대법원은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 박 전 장관에게 내려진 징역 3년, 추징금 1억원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한국문화정보  
국내 최고 권위의 물가전문지

일본규슈역시문화탐방단모집  
광주일보사 (062)220-0541